



“국가경쟁력이 뭐 별것입니까”

金 濟 琬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교수)

‘우루과이 라운드’라는 생소한 단어가 이제는 모든 사람의 일상용어가 되다시피 되었다. 정부는 정부대로 무한경쟁시대를 외치고 기업은 기업대로 국제경쟁력 강화만이 살아남을 길이라고 외친다. 이들 모두가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과학기술 진흥 이외에는 없다고 단언한다. 과학기술의 진흥은 그 토양이 되는 인력양성에 성패가 달려있다는 데에도 거의



모든 사람들이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는 듯하다. 고급 인력양성을 위하여 대학을 연구중심체로 전환해야 한다고 외치면서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참신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들 야단이다. 교육의 근본부터 다시 생각하는 ‘교육개혁위원회’가 발족되고 우리나라의 잘못된 대학입시제도의 개혁을 위하여 무엇인가 칼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정말 그럴까?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미국은 우리들과 어떻게 다른 입시제도를 갖고 있을까? 우리나라에 수학능력고사가 있듯이 미국에도 S. A. T (Scholarstic Appitude Test)라는 시험이 있다. 우리나라의 수학능력고사는 난이도가 어떻게 분별력이 어떻게 학생들의 부담이 어찌고 저찌고 하면서 모든 학부모가 제각기 전문가인양 다양한 목소리와 불협화음을 나타낸다. 미국의 S. A. T가 뭐 그렇게 잘된 것도 아닌데 미국학부모들이 불평하는 것을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아마 우리나라의 입시제도를 미국에서 그대로 실시하면 전연 문제도 없고 불평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목을 매달고 과외를 시키는 학부모도 없으려니와 학생들도 모든 것이 공부에만 달려있다는 아기같은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다. 좋은 제도와 국제경쟁력을 갖추는 일은 거창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아니고 평범한 주위의 일들을 모두가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작은 모순부터 제각기 고쳐나가는 것이다.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자. 우리나라 대학 가운데서 좋은 대학 하나를 꼽아본다고 하면 「서울대학교」라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서울대학교 중에서

도 내가 몸담고 있는 물리학과는 가장 커트라인이 높은 학과로서 알려져 있다. 아마 반대하는 전문가들도 있었지만 교수진도 학생들만큼 질이 좋다고 생각된다. 물리학과가 있는 건물은 27동인데(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의 건물은 100여개인데 번호로서 구별되고 있다) 몇년전까지만 해도 밤7시가 되면 출입문을 잠그고 안에서 쇠사슬을 감아서 확실하게 잠그어 버린다. 시위를 피하는 불순(?)한 운동권 학생들의 출입을 막으면서 도둑도 막아보겠다는 생각이라고 짐작들 하고 있었다. 밤늦게 연구실에서 나오면 안으로 연결된 25동까지 가서 밖으로 나와야 하고 역으로 연구실에 들어가려면 수위가 지키고 있는 25동 정문을 통하여 계단을 몇번 오르내리고 100m 정도 걸어가야만 자기 연구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불편을 통감(?)하고 있는 우리 물리학과 교수들은 때마침 민선학장이 우리 물리학과에서 당선되었기에 학장의 우선 ‘프로젝트’로서 27동문을 고쳐달라고 건의했다. 그렇게 첨단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저 안에서는 열수 있고 밖에 나가서 문을 닫으면 자동적으로 잠겨지는 그런 문으로 고쳐달라는 지극히 간단한 주문이었다. 교수들과 대학원 학생들에게

열쇠를 만들어주면 출입문을 열쇠로 열어서 각자의 연구실로 갈 수 있고 나올 때는 그냥 자동적으로 잠겨지는 그 혼란 상식적인 문을 달아달라고 한 것이다. 그래도 첨단기초과학을 뽑내는 데 서울대학교의 대 물리학과에서 이 정도를 요구하는 것이 너무하다는 말을 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우리들의 요구를 들은 학장님은 곧 서무과에 지시했고 며칠 뒤 요란한 드릴소리가 나더니 27동의 문 열쇠를 바꾸어 자동적으로 잠겨지는 문이 달려졌다. 이제는 추운 겨울밤에 멀리 25동까지 돌아가서 들어와야 하는 불편이 없어진 터라 좀더 연구에 열중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에 학장선생님의 업적(?)을 극구 찬양했다. 그렇지만 그런 편리는 몇일 가지 못했다. 문이 닫힐 때 너무 급하게 팽하고 닫혀지는 것을 완충하는 장치가 망가지면서 출입문은 제구실을 못하게 된 것이다. 또다시 시끄러운 드릴소리와 함께 문이 고쳐지고 몇일 뒤에는 망가지는 악순환이 계속되다가 2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아예 포기한 상태이다. 최첨단과학을 하는 물리학과의 문 한짝도 제대로 달지 못하는데 어떻게 국제경쟁력을 갖춘 기술이 가능할까? 정말 우리가 문한짝 제대로 달 수 있는 노-하우(Konw-how)가 없단 말인가? 물론 그렇지 않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인데 현실적으로는 되지 않고 있다. 서울대학교의 건물은 20년전 관악캠퍼스로 이전한 후 한번도 외부의 색깔을 단장한 적도 수리한 적도 없다. 건물에 들어서면 전기료를 절약하기 위하여 복도는 감방처럼 어둡고 계단의 구석구석이 부서져 있다. 화장실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악취가 복도로 스며들고 있다. 건설할 당시 설치한 복도의 포세트식(발로 밟으면 물이 나오는 수도형식) 수도는 아예 작동을 하지 않은지 벌써 10여년은 되었으리라 생각된다. 이렇게 무너져 가는 빈민굴의 폐허를 연상시켜 주는 '국제적인 대학'이 어느 나라에 있겠는가? 악취가 나는 건물에서 어둡고 칙칙한 환경에서 어떻게 밝고 좋은 연구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국제경쟁력을 갖추는 것은 먼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거창한 발상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주위에 흩어져 있는 웃지 못할 관행과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상식적인 일만 하나하나 고쳐나간다고 꼭 국제경쟁력을 갖추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조차 하지 못한다면 국제경쟁력이란 절대로 갖출 수가 없다. 미국의 일류대학들이 뭐 그렇게 현대식의 으리으리한 건물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백년이 훨씬 넘은 하버드대학의 물리학과 건물은 내부나 외부와 구석구석 손질이 되어 깨끗하고 밝다. 그곳을 거쳐간 유명한 학자들의 체취가 잘 보존되어 있으며 그 분위기 자체가 연구의욕을 유발하기도 한다.

교육문제만 해도 그렇다. 우리들의 어린 자녀들이 '입학시험'이란 관문을 통과하기 위하여 새벽에 별을 보고 도시락 두개와 책이 잔뜩 든 무거운 가방을 어깨에 메고 집을 나가면 밤11시 가까이 별을 보면서 돌아온다.

어른들보고 어린 자녀들처럼 18시간의 근무를 하려면 감당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자라나는 어린 자녀들에게 어른들도 못하는 중노동을 강요하는 상식이외의 행동이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 한다. 언론들만 해도 그렇다. 시험문제 하나의 난이도를 놓고 마치 무슨 톱뉴스를 다루듯이 신문과 방송이 총동원된다. 서울대의 수석합격자의 프로필이 사회면의 전단을 차지하는 예가 허다하다. 학부모는 학부모대로 입시학원의 선생님과 고등학교의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출제경향에 온 나라의 존재가 달린 듯이 야단이다. 물론 분별력 있는 좋은 문제로서 학생선발을 하는 것도 당연히 그래야만 한다. 그렇지만 선발이 중요한 것보다는 우리들의 자녀가 어떻게 교육을 받고 무엇을 배우며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지가 '선발' 자체보다는 백배, 천배 더 중요한 과제이다.

원만한 시험문제나 제도이면 그 분별력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다. 그것보다는 물리학과 학생의 입학성적과 그 학생의 학자로서의 성취도는 그렇게 분별력이 있는 것도 아니다. 입학시험제도가 문제가 아니고 학교교육 그 자체가 문제인데 왜 그 많은 학부모들과 언론 및 사회인들이 상식 이하의 우리나라 대학의 실정에는 무감각한지 모르겠다. 수재를 뽑아서 바로로 만드는 것이 「서울대」라는 말도 있는데 그나마 한국에서는 가장 좋은 대학이라니 씩씩하기만 하다. 어떤 국제기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울대가 세계의 대학 가운데 800등이라고 하는데(개인적으로는 믿지는 않지만) 이래서야 되겠는가?

단 하나의 대학이라도 100등 이내에는 들어야지 이래서야 말이 되겠는가? 문 하나라도 제대로 달고 계단을 수리하고 손질을 하는 일부터 빨리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뭐 국제화가 별것이나?' 라고 되풀이 해본다. **ST**